

##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 ⑥ 인사·미소 넘치는 빛고을

어린 자녀를 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올 여름 피서 최대 관심사는 나주시에 있는 물놀이 시설 '중흥 골드 스파 리조트'였다. 그동안 지역 내 마땅한 물놀이 공간이 없어 충청도며 경기도며 다른 지역까지 전전했던 지역민이 상당수였던 터라 기대 또한 커졌다.

## '웃·고·바 운동' 펼쳐

〈웃는 얼굴·고운 말씨·바른 인사〉

## '친절 광주' 다시 찾게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일담을 종합해보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좋다'·'나쁘다' 등 의견이 다양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종업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 일색이었다.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손님들 자체가 거칠어 기분이 나빴다' '안전요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몸에 친절이 배지 않았다'는 것이다.

흔히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 남도 사람들의 말과 표현이 다소 거칠면서 투박하다고 지적한다. 때로는 점감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귀에 거슬리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국체전을 맞아 모두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된 입장으로서 분명 바꿔야 할 때다. 우리의 고장을 찾는 선수단과 입원 및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역민의 책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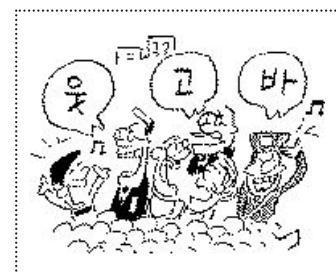
다행스럽게도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운동이 지난 1학기부터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웃·고·바' 친절 3운동이다.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고, 고운 말씨로 상대와 이야기하고,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지역 학생이 28만5천여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데다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포함시킬 경우 광주시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친절운동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애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의식변화와 친절운동 전개는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는 물론 문화수도 광주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함양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의 여



###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

지난 1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 4가역에서 개막된 '제52회 호남예술제 미술 부문 입상작 전시회'에서 어린이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중·고등부와 유치부 입상작 800여 점이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조선대 총장 후보 본격 검증

### 13일 선거 앞두고 내일부터 4차례 토론회

#### '조선대총장 누가 되나?'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13대 조선대 총장 선거가 4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라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총장 선거 출마자(기호순)는 신인현(53·사법대 과학교육학부)·이용보(60·사법대 과학교육학부)·전호종(53·의과대학 의학과)·강동완(53·치과대학 치의학과)·박대환(52·외국어대 독일어과)·서재홍(58·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등 6명. 현재 '1강 3중 2약' '2강 3중 1약' '박빙' 등 다양한 판세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인현 교수는 교수협의회 의장을 2회 역임한 데 이어 전국 90개 사립대학 학교수회연합회 대표의장을 3년간 지냈다. 학생처장 재직시 학생지도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의리와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해남 북평고 출신으로 고교 인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대에서는 조대부고 출신이 교수 70여 명, 고직원 40여 명 등 11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고·광주일고 40여 명, 살레시오고·광주상고 30여 명, 광주공고·동신고·승일고 20여 명 등 특징 고교 출신이 많다.

이용보 교수는 교수협의회 의장과 사단법인 한국교수회 회장을 지냈다. 광주농고 출신으로 일본 국립쓰꾸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ROTC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일본 유학과 교수 20여 명과 ROTC출신 교수 40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호종 교수는 지난 2003년 제12대 선거에도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 김주훈 현 총장과 결선투표에서 맞대결했으나 302표를 획득해 30표 차이로 고배를 먹셨다. 이로 인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정표를 지난 '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동완 교수는 치과병원 원장과 치대학장을 지냈다. 첨단치의 공학인력 사업단 단장으로 교육부에서 50억원

을 유치했고 치과용 정밀장비부품지

역혁신센터장으로 산업자원부에서 88억원을 끌어와 대학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대환 교수는 목일 칼스루에 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내는 등 국제화 마인드가 앞서있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 의장도 지냈다. 친동생인 박유환 전 조선대 의대 교수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대 교수들과도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재홍 교수는 교수협의회 의장, 환경보건대학원 원장,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제12대 선거에 출마해 76표를 획득해 3위를 차지하는데 6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조대부고 출신이다. 지난 4년 동안 교수들을 상대로 재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장 선거 일정은 ▲교수협의회·노조 주관 정책토론회(9월 4일) ▲총동창회 주관 토론회(6일) ▲총학생회 주관 토론회(7일) 등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 크게 늘었다. 여성 미약사범 비율은 그동안 평균 10%를 넘지 않았으나, 올해 처음 20%를 넘어섰다.

직업별로는 ▲농업인 44명 ▲무직자 20명 ▲주부 7명 ▲노동자·자영업자 각 5명 ▲요식업자 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10명 ▲40~50대 70명 ▲60대 이상 20명이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 구름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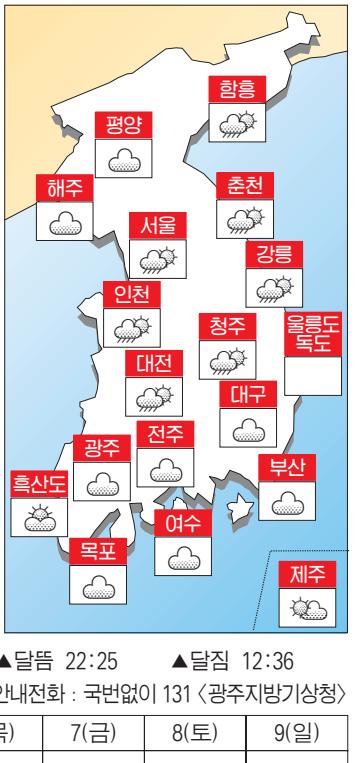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주포	구름 많음	19~27°C
여수	구름 많음	19~26°C
완도	구름 많음	20~28°C
구례	구름 많음	19~28°C
해남	구름 많음	20~28°C
장흥	구름 많음	20~28°C
충청남도	구름 많음	18~28°C
충청북도	구름 많음	19~28°C
전주	구름 많음	18~28°C
원주	구름 많음	17~28°C
충북	구름 많음	18~23°C

### 9월 3일

(음 7월 22일)

◇전국날씨



## 소록도엔 '사랑의 자장면 잔치'

### 중국음식점 주인들 방문

### 내일 환자·주민들에 대접

불우이웃을 위해 사람의 자장면을 만들어온 중국 음식점 주인들이 4일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자장면을 대접한다.

강동구 내 140여 개 중식업체가 회원인 강동구 종식업연합회는 1997년 전북단체로 출범한 뒤 불우이웃이나 전방 군부대, 제해 복구현장을 찾아다니며 자장면으로 사랑을 전달해 온 지역봉사 모임이다.

밝혔다.

강동구 관내 중국음식점 24곳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강동구청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며 동작구 중식업체 회원들도 사랑의 실천현장을 배우기 위해 소록도 행에 나서기로 했다. 강동구 내 140여 개 중식업체가 회원인 강동구 종식업연합회는 1997년 전북단체로 출범한 뒤 불우이웃이나 전방 군부대, 제해 복구현장을 찾아다니며 자장면으로 사랑을 전달해 온 지역봉사 모임이다. /연합뉴스

### 외도 의심 남편 미행

### 이혼 사유 안된다

아내가 남편을 미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배우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할만한 사정 때문이었다면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 옆에 여성화장품이 둘러있는가 하면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갑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 어떤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남편을 미행했다. A씨는 미행을 하는 아내를 "의부증이 있다"고 불어붙이며 폭행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 판사는 2일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미행한 것은 부적절한 쳐사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 A씨 옆에 여성화장품이 둘러있는가 하면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갑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 어떤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 광주·전남 여성 미약사범 20% 넘어서

광주·전남 지역 미약사범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여성 미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해 1~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미약사범은 모두 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명에 비해 무려 61.2%가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8명, 여성 2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여성의 미약사범

이 크게 늘었다. 여성 미약사범 비율은 그동안 평균 10%를 넘지 않았으나, 올해 처음 20%를 넘어섰다.

직업별로는 ▲농업인 44명 ▲무직자 20명 ▲주부 7명 ▲노동자·자영업자 각 5명 ▲요식업자 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10명 ▲40~50대 70명 ▲60대 이상 20명이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1위 전문학원! 전문학원! 전문학원!

개강 9月 3日

전국 1위 전문학원! 전문학원! 전문학원!

전국 1위 전문학원! 전문학